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도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여론 내에서 물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해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윤석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정치 염두에 두고 있다 생각 안 해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 유지 속 특단의 공급대책 내놓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 신뢰 쌓이면 남쪽 답방 이뤄질 것 코로나 백신 물량 충분히 확보 2월~9월 1차 접종 마칠 계획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것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 입장을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역

세권 개발을 비롯해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관계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지 않느냐는 질문에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었다”며 “분기별로 순차적 도입 해서 2월부터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고 그때쯤 되면 대체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에 남은 2차 접종까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접종 시기라든지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법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딸 ‘라우실’ 물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중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목적이거나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부정판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

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정략과 함께 회사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2017년 2월 구속 기소했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제 뇌물액 중 정씨 측과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재단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되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영암 관음사 관원 코로나 광주로 번져

광주·전남 확진자 수는 감소

영암의 개인 사찰인 관음사 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로 번지면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효정요양병원 관련 사망자도 발생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6명(1445~1450번), 전남 2명(664, 665번) 등 모두 8명이다.

광주 1445번은 영암 관음사 관원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1446번과 1447번은 영암 삼호읍 관음사 관원 집단 감염인 도포면에서 농사를 짓는 전남 658번과 접촉한 뒤 나란히 집단 감염 판정을 받았다. 정확한 경로는 조사중이다. 1448~1450번은 에버그린요양원 관련 확진자 등이다.

추가 사망자도 나왔다. 전남 오후 7시 현재 효정요양병원 관련 광주 1356번 확진자가 집중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 19로 사망했다. 80대 고령자인 1356번은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광주지역 집단감염의 최근 유행병 확진자는 ▲

효정요양병원 146명 ▲에버그린요양원 76명 ▲정사교회 74명 ▲BTJ엘방센터 67명 ▲광주 1235번(양동시장 관련) 15명 ▲중앙병원 14명 등이다.

전남에선 영암과 화순에서 확진자가 각각 1명 나왔다. 화순 확진자인 전남 664번은 지난 7일 경기 수원시에 사는 기존 확진자와 전주에서 밀접 접촉한 뒤 격리 중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665번은 전남 658번과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658번 환자는 영암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광주 거주자로 최근 마을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 누적 확진자는 1447명이며 이 가운데 지역 감염자는 1344명, 해외 유입은 103명이다. 전남 누적 확진자 665명 중 지역 감염자는 603명, 해외 유입은 62명이다. 사망자는 광주 13명, 전남 6명 등 모두 19명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일 확진자는 389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7만2729명이다. 전남(520명)보다 131명 줄어들면서 이번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인 지난해 11월 25일(382명) 이후 54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고속철 정차역 공사 착수 ▶2면

광주 외국인 1만3000여명 코로나 전수 검사 ▶6면

굿모닝 예향 - 싸목싸목 장성 한바퀴 ▶18-19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1111, 자동차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 (매곡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안로 516 (수원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이항대로 603 (백담동) 205호(주말)
수원 서비스센터 (062)94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대로 520 (수원동)

정부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M EX (배기량:1950, 공차중량:1900, 자동차연비:13.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M AMG line (배기량:1950, 공차중량:1900, 자동차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 공차중량:1920, 자동차연비:10.0,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 공차중량:1920, 자동차연비:10.0,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